“손수 법의 지으며 부처님 공덕 쌓아요”

통도사, 가사불사 기간 중 ‘가사원’ 운영

전국 교구본사 중 유일 운영
가사 참된 의미 알리기 위함
편수 명천 스님 체계적 교육
7월 11일까지 일반에 개방


가사불사 기간 동안 통도사는 가사원을 운영하고 불자들에게 참된 가사 불사 공덕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5월 30일 방문한 가사원에서 만난 불자들과 편수 명천 스님.

전국 불자들이 공덕을 짓는 가사불사 기간에 특별히 정성으로 손수 법의를 짓는 곳이 있다.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통도사가 운영 중인 가사원이 바로 그곳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5월 28일 가사불사 및 생전예수재 입재를 봉행하며 가사원을 경내 영산전에 설치했다. 가사원은 스님들의 법신을 상징하고 호법하는 가사를 짓는 곳이다.

2006년 조계종은 가사를 통일하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 1층에 조계종 가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는 일괄 조계종 가사원에서만 만들어져 가사원 운영이 별도로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통도사는 가사불사 기간이면 어김없이 가사원을 연다.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5월 30일 통도사 가원을 방문해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입구에 들어서도 쳐다보거나 인사 하는 이가 없다. 가사를 만드는 손길은 고요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 돌아가다 멈추다를 반복했다.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는다.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원을 찾는다고 했다.

권점화(65 · 부산 화명동) 씨는 “가사를 지으며 그 공덕으로 기도하니 더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박영애(54 · 양산) 씨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문수보살님이 가사를 품에 안겨 주시는 꿈을 꿨다. 그 이후 수원에서 통도사로 이사를 왔는데 가사원을 보고 너무 반가워 당장에 봉사를 시작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었는데 정말 삶이 달라지고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피라 믿는다”고 웃어 보였다.

통도사 가사원은 가사의 의미를 일반 재가자들에게 전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불자들은 가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각 조각과 기호 그리고 색에 대한 뜻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정분남(60 · 초읍동) 씨는 “모든 가사에는 사천왕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사 모서리에 정사각형으로 자른 가사천을 덧대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옷이며 스님들의 옷이기에 공경하고 그 의미를 깊이 알수록 더욱 환희심이 생긴다. 젊은 불자들이 더 오면 좋겠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일이 널리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통도사 가사원 가사불사를 담당하는 편수는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이다. 명천 스님은 제24회 대한민국불교대전에서 고려 가사를 고증 복원해 손으로 손수 지은 작품 ‘복전의(福田衣)’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명천 스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이나 유럽 등의 세계적 박물관에서 불교미술을 전시하며 문화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가사불사 편수를 명천 스님께 맡겼다.

명천 스님은 “가사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법복이다. 불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사다. 현재 조계종 가사원에서 통일 가사를 제작함으로써 통도사에선 오조 가사 외엔 만들 수가 없다. 큰 의미를 담는다 할 순 없지만 신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정성을 담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다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가짐을 먼저 보면 참된 가사공양의 공덕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가사원은 가사불사 기간 7월 11일까지 운영된다. 봉사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참여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성미 기자

부산 자비정사, ‘아동 꿈 후원 전시회’

6월 17일 오후 1시 개막


추담 스님이 작품 ‘합장’과 함께 손을 모았다.

부산 자비정사(주지 추담)는 ‘아동 꿈 후원 전시회’를 6월 17일~23일 갤러리 카페 바라기에서 개최한다. 전시 개회식은 17일 오후 1시 갤러리 내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커팅식에 이어 내빈 및 후원 아동 소개 등 순서로 진행된다.

후원 아동은 신도 가정의 자녀로 아버지가 사고사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 추담 스님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전시를 맞아 아이가 부처님의 팔상도를 직접 그렸다. 당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미술 작품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미술심리상담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총 80여 종으로 30여 년 동안 수행과 함께 틈틈이 제작한 작품이다. 촛대, 불두, 학, 목어 등 불교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

갤러리 바라기는 1층 커피숍, 2층 갤러리로 구성돼 있다. 2016년 불사를 시작해 11월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전시가 첫 전시다. (010)3044-7504 하성미 기자

운문사 1300여 성보 보유 ‘관리 시급’

5월 31일 성보유물 설명회 개최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5월 31일 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운문사 소장 성보유물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운문사는 최근 문화재 전문가와 경내 및 산내 암자에 소장 중인 성보문화재를 조사, 약 1,300건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운문사 금당 앞 석등(보물 제193호)를 비롯한 10건의 국가 지정 문화재, 운문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등 3건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비로전 앞 석등도 지정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운문사 내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운문사는 1500여년 역사를 담을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성보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불자들과 문화로써 소통할 예정”이라며 운문사 범종루 앞 빈 공간에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운문사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 · 발굴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문화재청 등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진구청, 혈세로 교회 부동산 투기 돕나?”

천안사, 부산진구청에 의혹 제기… 해명 요구


물의를 빚고 있는 신축 교회 건설 현장이다. 천안사는 부산진구청이 특정 종교가 부당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 천안사(주지 보각)가 부산진구청이 특정 종교가 부당 이득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지 보각 스님은 6월 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부산진구청은 특정 종교에 각종 특혜와 부당한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보각 스님은 부산진구청이 당감4동사무소(건강생활지원센터)용도의 건립 부지(총 410.7평)를 매입하던 중 A교회의 부지 4필지를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혈세를 낭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님은 “부산진구청이 사전 정보를 교회 측에 누설해 교회가 미리 싼 값에 땅을 매입하도록 도왔고, 교회가 부당 이익을 얻도록 동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스님은 관련 등기부등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A교회 지역이 당감4동사무소 건립 확정을 받은 시기는 2015년 12월이다. 교회가 주변 부지를 매매한 날짜는 2015년 12월 17일과 2015년 5월 23일이다. 총 211평 부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각 스님은 “교회는 건립확정 시기에 땅을 매매했다. 또 은행에서 8억 5000만원을 대출했다. 이 시기에 대출까지 하며 무리한 이유는 급히 매매를 서둘러야 할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세 차익으로 교회가 얻은 금액만 무려 4억3,600만원이 넘는다. 6월 1일 나머지 땅도 수용됐다. 이것까지 합하면 5억 원은 충분히 넘는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교회를 신축하는 현장은 구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물길 혹은 하천보다 작은 수로를 의미하는데, 점용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각 스님은 “부산진구청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눈감아줬다. 건축시공사 현장 소장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단 구거를 성토했다고 진술한바 있다”며 불법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도 지적했다. 보각 스님은 “교회 건설현장에 건축 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 진구청 담당 공무원과 방문했다. 그때 당시 현장소장이 불법 매립한 것을 진술 했다. 담당공무원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신축 A교회 목사는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며 4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며 토지 매입 정보를 얻은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영진 행정자치국 국장은 “사실 여러 차례 목사님을 찾아가 땅을 팔라고 설득하고 매달렸다.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왜 땅을 안 팔려고 했겠는가. 의혹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고 단정했다. 하성미 기자

“할아버지, 함께 식사해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MOU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과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과장 김오연)가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세미나실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식도락(食道樂)’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나선다.

‘식도락’은 용호종합복지관 특화사업으로 독거어르신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남성을 주 대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준비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밥상 친구가 돼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요리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도락 프로그램에 협조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노인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12